

# 李白과 杜甫의 論書詩 研究\*

이 기 범 \*

<目次>

I. 序論	IV. 論書詩에 나타난 美學思想
II. 盛唐의 書風과 論書詩	V. 結論
III. 論書詩 典型的 形成	

<국문 초록>

일찍이 중국문화에 있어서 글씨는 단순히 문자를 서사하여 기록을 전한다는 기능적인 측면과 글씨를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해 낼 것인가 하는 예술적인 측면이 공존해 왔다. 고대에 붓이 발명되어 서사문화가 생기면서부터 역사적인 기록물이든 문학작품이든 모필의 서사에 의하여 이것들은 기록되어져 왔다. 漢代에 서예가 예술로 인식되면서 전문적인 서예가가 출현하여, 이러한 문자의 기록을 보다 예술적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이 시작 되었다.

한편으로 서예는 문자를 매개로 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서사의 대상이 되는 문장의 내용도 서사자의 서예에 많은 영향을 준다. 문학작품, 그 중에서도 詩의 경우는 어떤 대상물과 작자와의 교감을 통하여 그 정회를 쓴다는 것이 서예와 거의 일치하여, 여타의 장르보다도 부합되는 점이 많다.

당대는 시가 가장 중요한 문학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시를 짓고 그러한 감흥을 서예작품으로 쓰는 것은 역대로부터 내려온 당대의 일반적인 문화였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35C-2011-2-G00063).

\*\* 경기대학교 서예·문자예술학과 대우교수 / lechyunso@hanmail.net

이렇게 당시 문인들에게 있어서 書藝라는 것이 그들이 지은 文章을 직접 書寫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示唆하는 바가 크다. 詩를 지은 당시에는 거의 모든 부분을 肉筆 의존해서 기록하고, 그 肉筆을 먼저 보고 詩를 감상해야하는 당시에는 詩의 내용보다도 우선 글씨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글씨로 부터서 전해지는 情感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情感이 詩의 내용과 잘 조화될 때, 詩를 감상하는 사람에게는 詩의 내용과 더불어서 感興이 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당시의 유명한 시인들도 논서시 창작 대열에 합류하고 있고, 대시인 이었던 李白과 杜甫도 또한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다.

이백과 두보가 남긴 17 수의 시를 형식과 내용으로 구분해 볼 때, 형식적으로는 후대의 논서시에 대하여 하나의 전형을 형성하였다. 그들의 논서시는 포괄적으로 첫째, 글씨를 폼평한 시, 둘째, 서체의 형태미를 묘사한 시, 셋째, 서가의 성취를 묘사한 시, 넷째, 논서절구의 효시가 된 시로 구분할 수 있었다. 글씨를 폼평한 시는 이백의 「王右軍」이 대표가 되고, 서체의 형태미를 묘사한 시는 이백의 「草書歌行」과 두보의 「李潮八分小篆歌」가 모범이 되었다. 또한 절반에 해당하는 8 수의 시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당시의 서풍을 잘 반영해주는 현상이기도 하거니와 서체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서의 본질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경향이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 서가의 성취를 노래한 시는 이백의 「送賀賓客歸越」이 대표작이며, 논서절구의 효시가 된 시는 두보의 「戲爲六絕」이었다.

내용적인 분류인 논서시에 나타난 그들의 미학사상은 瘦硬美, 通神美, 尙古美이다. 수경미는 두보가 고래로부터 전해오던 ‘骨力’이나 ‘骨氣’의 개념을 자기만의 것으로 형상화 한 것이고, 통신미에서 글씨라는 것은 ‘神’해야 한다는 것은 이백과 두보가 가졌던 공통적인 미학사상이었다. 상고미는 현실의 정치적 불만족 자기이상과의 불일치를 바탕으로 한 상고이기도 하며, 이백은 왕희지를 추구하였고 두보는 篆隸의 추존이었다. 이상을 통해볼 때, 이백의 논서시는 주로 형식적인 면에서 표준이 되었고 두보의 논서시는 내용적인 면에서 표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논서시는 학시자들이 그들의 시를 표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후 대대로 표본이 되었고, 송대 소식에 이르러 다시 한번 논서시가 크게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제어】 李白, 杜甫, 論書詩, 書藝, 瘦硬美, 通神美, 尙古美

## I. 序論

중국문화를 대표하는 시와 서예는 당대에 이르러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 문화란 시대별로 각기 고유한 색채를 띠며 일정한 유형을 가지게 된다. 서로 상반된 성향의 이백(701-762)과 두보(712-770)는 각자의 영역을 가지며 盛唐의 시, 唐代의 시를 대표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들은 서예에 있어서도 뛰어난 안목과 미의식으로 당시 書壇의 경향과 서예작품, 서가들에 대한 評 등을 시로 노래하여 ‘論書詩’라는 새로운 분야가 정착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중요한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 실로 이들에 의하여 논서시는 그 전체적인 윤곽을 형성하게 되었다.

논서시는 서예가 예술로 인정을 받기 시작한 동한 말기부터, 崔瑗(78-143)의 「草書勢」를 필두로 여러 서론 들이 나오면서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唐代 이전에는 이렇다 할 논서시가 존재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서화 용구를 대상으로 한 시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렇지만 간간히 남조시대 宋의 鮑照(414-470)와 같은 이는 「飛白書勢銘」과 같은 시를 지어, 당시의 서론들을 응축한 사상들은 당대에 논서시 작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당대에 들어서 李嶠(644-713)의 「書」는 문자의 창제로부터 書法의 오묘한 이치에 이르기까지를 8구의 오언고시로 응축하여 풀어내었다. 여기에서 제시된 ‘骨氣’의 개념은 후일 두보의 논서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를 이어 李白杜甫와 함께 성당의 시대를 살았던 李頎(690-751)는 「贈張旭」이라는 장편의 오언고시를 통하여 성당의 서예문화와 더불어 장욱이 광초를 쓰는 풍경과 그 필치를 호방한 필치로 묘사 하였다. 그가 여기서 제시한 ‘放神’의 개념은 이백과 두보에게 그대로 전승되어 ‘入神’ 혹은 ‘通神’으로 點化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서시에 대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이백과 두보에 이르러 논서시가 전형을 형성하였음을 이야기 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들의 논서시에 나타난 미학사상을 구체화 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백과 두보의 논서시가 어떠한 배경 하에서 어떠한 유형으로 형성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시를 통하여 살피고 그 미학사상을 도출하려 하는데,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자들<sup>1)</sup>에 의하여 분류된 그들의 논서시는 <도표1> 과 같다.

구분	作家	詩題	形式	對象	內容
1	李白	草書歌行	歌行	懷素	草書
2	李白	送賀賓客歸越	雜言	賀知章	書家
3	李白	酬張司馬贈墨	雜言	張司馬	墨
4	李白	王右軍	五古	王羲之	王羲之의 書
5	李白	獻從叔當塗宰陽冰	五古	李陽冰	篆書
6	杜甫	觀薛稷少保書畫壁	五古	薛稷	薛稷의 書
7	杜甫	殿中楊監見示張旭草書圖	五古	張旭	草書
8	杜甫	李潮八分小篆歌	雜言	李潮	八分, 小篆
9	杜甫	送顧八分文學適洪吉州	五古	顧戒奢	八分
10	杜甫	石研歌	五古	平公	硯
11	杜甫	飲酒八仙歌	七古	張旭	草書
12	杜甫	寄張十二山人彪三十韻	五古	張彪	張彪의 書
13	杜甫	贈秘書監江夏李公邕	五古	李邕	書評
14	杜甫	壯游	七古	杜甫	書家
15	杜甫	醉歌行	七古	甥姪	草書
16	杜甫	觀公孫大娘弟子舞劍器行并序	七古	張旭, 公孫大娘	草書, 劍舞
17	杜甫	丹青引贈曹將軍霸	七古	曹霸	曹霸의 書畫

<도표 1>

1) 지금까지 이백과 두보의 논서시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馬世曉, 「杜甫論書詩及其藝術思想」, 『中國書法』, 1993.  
 方愛龍, 「杜甫李潮八分小篆歌論兼與蘇軾比較」, 『杭州師範學院學報』, 杭州師範學院, 1998.  
 尹天相, 「論書詩賦初探」, 『渭南師專學報』, 渭南師專科學校, 1991.  
 禹在鎬, 「唐代 書藝詩 試探」, 『中國語文學 第43輯』, 한국중어중문학회, 2008.12.  
 李起範, 「中國 論書詩 小考」, 『漢文古典研究』 제15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07.  
 李丙疇, 「杜甫의 論書詩와 論畫詩」, 『書通』 19號, 東方研書會, 1990.  
 周本淳, 「杜甫與蘇軾論書詩之比較」, 『淮陰師專學報』 哲學社會科學版, 1988.  
 蔡顯良, 「唐代論書詩研究」, 南京藝術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  
 何元元, 「李白草書歌行眞偽」, 『淮陽師範學院學報』, 淮陽師範學院, 1988.

이백과 두보는 전체 100餘 首의 唐代 論書詩 가운데에 가장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이백이 5 首이고 두보가 12 首이다. 물론 이중에는 논서시와 일반 시와의 경계가 모호한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두보의 「飲酒八仙歌」는 단순히 當時의 음주문화를 읊은 시로 볼 수도 있지만, 서예가들의 입장에서 張旭의 부분을 보면 완전한 논서시가 되는 것이다. 또 두보의 「觀公孫大娘弟子舞劍器行并序」를 보면 공손대량의 춤사위만을 읊어서 도저히 논서시가 될 것 같지 않지만, 그 시의 序에 張旭이 공손대량의 검무를 보고 필법이 크게 발전하였다고 되어 있어서, 검무의 묘사가 초서의 필치를 묘사한 것으로 보고 논서시로 분류하고 있다.<sup>2)</sup> 본 연구의 연구대상 목록은 『欽定四庫全書』에 포함된 『全唐詩』 『李太白集注』 『李太白集分類補注』와 『補注杜詩』 『杜詩詳注』를 저본으로 하였다.

## II. 盛唐의 書風과 論書詩

### 1. 盛唐의 書風

당대는 논서시가 논서시로서 갖추어야 할 일정한 형식<sup>3)</sup>이 갖추어진 시기이다. 『全唐詩』에 전하는 논서시는 약 백 여 수 정도로, 양적인 면이나 주제제재의 다양성에 면에서도 전대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sup>4)</sup> 이러한 주요 요인은 당대에는 ‘詩’가 가장 중요한 문학적인 수단

2) 蔡顯良, 「唐代論書詩研究」, 南京藝術大學院 碩士學位申請論文, 2004, p.34, “唐代論書詩存目”.

3) 논서시가 논서시로서 갖추어야 할 일정한 형식이란 주제나 제재, 시를 읊는 방식이나 대상 등이 대부분 당대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唐을 이은 宋代에는 『全宋詩』에 전하는 논서시가 900여 首나 될 정도로 많았으니, 논서시가 문인과 서가들 사이에서 보편화된 시기이다. 元과 明은 큰 변화가 없이 宋대를 이은 계승기이며, 清代는 논서시가 金石學 · 考證學과 함께 꽃을 피운 절정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魏晉南北朝時代에는 서예가 독자적인 예술적 경지를 구축하였다면, 당대에 와서는 글씨를 그 사람의 인격이나 학문이 반영된 것으로 여길 정도로 서예에 대한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초당의 서예는 歐陽詢(557-641)·虞世南(558-638)·褚遂良(596-658)의 初唐三家 등이 활동하면서 唐楷를 완성하는 등 尚法의 시대를 열었다. 특히 太宗(559-649)이 王羲之(303-361)의 글씨를 매우 좋아하여 세상에 남아 있던 그의 글씨를 모두 수집하게 하고, 우세남과 저수량 등에게 그의 글씨를 감정하여 명적들을 모각본으로 만들어 출간 하였으며, 『蘭亭序』는 명가들에게 臨摹本을 만들게 하여 여러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왕희지의 서풍이 일세를 풍미하도록 만들었다. 초당의 서예는 한마디로 규범적인 初唐三家들의 해서와 왕희지의 서풍이 유행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당대의 문화는 점차 성당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더욱 당대만의 고유한 색채를 발산하게 된다. 시에 있어서는 당대를 대표하는 李白과 杜甫가 나왔고, 自然派로 대변되는 孟浩然(689-740) 王維(701-761) 등의 대시인들이 나왔다. 서예에 있어서는 초당에서의 왕희지를 표본으로 한 엄격한 서풍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서풍이 요구 되었다. 이에 보다 자유로운 초서인 狂草가 유행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황실의 주도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篆書와 隸書가 진작되기도 하였다.

당대는 儒家뿐만 아니라 佛家와 道家의 사상이 서로 어울려 발전하였던 시대였다. 초당의 서예가 유가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한 왕희지의 서풍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성당의 서예는 불가나 도가적 경향이 짙게 나타난다. 當時에 賀知章(659-744) 李白 등이나 狂草로 유명한 張旭(675-?) 懷素(725-785) 등은 하나 같이 예법에 얽매이기보다는 술에 취하여 시를 읊고 그것을 흥취에 따라 초서로 쓰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래

4) 위진남북조시대까지의 논서시는 약 10여 수 정도가 전한다.

서 이백은 “나는 본래 초나라의 미친 사람이라서(我本楚狂人), 봉황의 노래로 공자를 비웃는다(鳳歌笑孔丘).”<sup>5)</sup>라고 하였고, 현종 때 시인인 任華는 장욱에 대하여 “그 사이에 장욱은(中間張長史), 방탕할 뿐 규범이 없었네(獨放蕩而不羈).”<sup>6)</sup>라고 하였다. 이들은 성당에 있어서 시와 서예의 문화를 선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를 추종하고 시로 읊기도 하였다.

한편 성당 시대의 황제였던 玄宗(685-762)은 태종과 측천무후에 이어 서예를 진작 시킨 인물이기도 하였다. 그는 隸書의 사용을 제창하여 새로운 창작대상으로 정착하게 하는 공로를 세웠다.<sup>7)</sup> 이는 실용적인 글씨가 아니라 예술로서의 창작 대상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서를 많이 썼던 사람으로 玄宗史惟則韓擇木徐浩(703-782) 등이 있다.

다른 한 부류의 서예가들은 여전히 왕희지를 전범으로 하고 있었는데, 李邕(678-747)과 顏真卿(709-785) 같은 이는 왕희지를 공부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서풍을 만들어 냈다. 특히나 안진경은 광초의 장욱과 더불어 성당의 서예를 대표하는 인물로 여겨진다. 顏體라 불리는 그의 해서는 당나라 시대의 해서를 대표할 뿐 아니라, 顏體의 탄생은 중국 서예사에 있어서도 가장 역사적이며 가치 있는 일로 평가된다.<sup>8)</sup> 이는 이전의 서체가 진나라 서풍인 王羲之體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혁신이자 독립이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일이기도 한 것이었다.

## 2. 盛唐時代의 作詩와 書寫文化

일찍이 중국문화에 있어서 글씨는 단순히 문자를 서사하여 기록을 전

5) 李白 著王琦 注, 「廬山謠寄盧侍御虛舟」, 『李太白集注』 卷十四.

6) 楊克炎 選注, 『書法咏論』, p.19.

7) 裴奎河, 『中國書法藝術史』 下卷, p.40.

8) 裴奎河, 위의 책, p.44.

한다는 기능적인 측면과 글씨를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해 낼 것인가 하는 예술적인 측면이 공존해 왔다. 고대에 붓이 발명되어 서사문화가 생기면서부터 역사적인 기록물이든 문학작품이든 모필의 서사에 의하여 이것들은 기록되어져 왔다. 漢代에 서예가 예술로 인식되면서 전문적인 서예가가 출현하여, 이러한 문자의 기록을 보다 예술적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이 시작 되었다.

동한의 蔡邕(133-192)은 “글씨를 쓰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하니, 성정에 맡긴 연후에 글씨를 써야하는 것이다.”<sup>9)</sup>라고 하였듯이, 서예라는 것은 먼저 선입견을 없애고 당시에 느껴지는 감정에 충실하여 글씨를 표현해 내는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서사의 대상이 되는 문자의 내용도 서사자의 서예에 많은 영향을 준다. 때문에 문장의 내용이 기쁜 것이라면 서사자의 글씨도 기쁘게 서사될 것이고, 문장의 내용이 슬픈 것이라면 슬프게 서사될 것이다. 그런데 역사나 철학적인 내용을 기록할 때에는, 당시의 감정에 따르기 보다는 사실의 전달이나 논리적인 서술에 더 유의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에 부합하고 감성에 따른 서예를 구사하기 힘든 면이 있다. 그러나 문학작품, 그 중에서도 詩의 경우는 어떤 대상물과 작자와의 교감을 통하여 그 정회를 쓴다는 것이 서로 거의 일치하여, 여타의 내용보다도 용이한 면이 있다. 물론 書簡 등 일부의 散文들도 그런 성향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당대는 시가 가장 중요한 문학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시를 짓고 그러한 감흥을 서예작품으로 쓰는 것은 역대로부터 내려온 당대의 일반적인 문화였다. 이렇게 당시 문인들에게 있어서 書藝라는 것이 그들이 지은 文章을 직접 書寫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示唆하는 바가 크다. 詩를 지은 이후에는 거의 모든 부분을 肉筆 의존해서 기록하고, 그 肉筆을 먼저 보고 詩를 감상해야하는 때에는 詩의 내용보다도 우선 글씨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글씨로 부터

9) 潘運告 主編, 『漢魏六朝書畫論』, 「筆論」, p.43, “欲書先散懷抱, 任情恣性, 然後書之。”



서 전해지는 情感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情感이 詩의 내용과 잘 조화될 때, 詩를 감상하는 사람에게는 詩의 내용과 더불어서 感興이 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당시의 유명한 시인들도 논서시 창작 대열에 합류하고 있고, 대시인 이었던 李白과 杜甫도 또한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다.

論書詩를 통하여 作詩와 書寫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曹植(192-232)의 「長歌行」 이래로 唐 이전의 논서시에서는 作詩와 書寫와의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성당시대에 들어와서 작시된 논서시들에서는 그러한 경향을 살필 수 있다. 그것은 當時의 문인들 사이에서 행하여졌던 飲酒와 作詩, 그리고 書寫가 하나로 연결된 문화현상이었다. 예를 들자면, 李頎(690-751)는 「贈張旭」에서 “이마 드러내고 걸상에 앉아(露頂据胡床), 서너 너덧 길게 소리 지르다가(長叫三五聲), 흥이 나면 흰 벽에 휘갈겨 쓰니(興來灑素壁), 운필이 마치 유성과 같구나(揮筆如流星).”<sup>10)</sup>라고 하여 당시의 서사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장욱이 술을 마시고 매이지 않는 모습으로 있다가, 큰 소리로 시를 읊조리기도 하다가 흥이 일면 자유분방하게 광초를 쓴 광경을 묘사한 장면이다. 장욱의 이러한 풍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는 두보의 「飲酒八仙歌」로, “장욱이 세잔 술을 마시고 쓴 초성이라 전하니(張旭三杯艸聖傳), 모자를 벗고 이마 드러낸 채 왕공 앞에 나아가(脫帽露頂王公前), 휘호 하면 구름이 피어나듯 하였네(揮毫落紙如雲煙).”라고 하였다. 동시대에 살았던 蘇渙은 「懷素上人草書歌」에서 “흥이 일면 붓 휘두름 회오리바람 이는 듯하고(興來走筆如旋風), 술 취한 후 귀가 뜨거워지면 마음 더욱 거세지네(醉後耳熱心更凶).”<sup>11)</sup>이라 하여, 회소 스님 역시 흥취가 일면 미친 듯이 광초를 쓰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회소 스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馬雲奇도 「懷素師草書歌」에서 “흥이 나면 붓 가는 대로 자유롭게 휘두르니(興來索筆縱橫掃),

10) 沈培方 · 洪丕謨, 『歷代論書詩選注』, p.3.

11) 楊克炎 選注, 앞의 책, p.13.

명망 높은 문인들 모두 좋다고 하네(滿望詞人皆道好). …… 작품은 문장과 필묵이 서로 맞으니(在身文翰兩相宜), 마치 거울 속 서시를 대하는 것 같구나(還如明鏡對西施)<sup>12)</sup>라고 하여, 흥이 일면 자유스럽게 광초를 쓰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장옥이나 회소 스님이 쓴 문장이 본인이 직접 읊은 시를 쓴 것인지 아니면 남의 글을 외워서 쓴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당시의 서예가들은 일반적으로 작시의 능력을 구비하고 있었음을 생각할 때, 오로지 남의 글만을 썼으리라고는 볼 수 없다. 어쨌든 남의 글을 쓰는 것보다는 자신이 시를 짓고 그 정취를 글씨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다. 장옥과 회소 스님이 문장 보다는 글씨가 훨씬 두드러지는 사람들 이었다면, 이백과 두보는 시가 출중하였지만 그들 역시 성당의 문화 속에서 직접 시를 짓고 그것들을 초서로 쓰기를 즐겨 했던 사람들이었다.

### Ⅲ. 論書詩의 典型<sup>13)</sup>形成

중국문학사에 있어서 詩는 문학의 精髓로 여겨져 왔고, 오랜 세월동안의 수많은 시들 가운데에서도 唐詩를 으뜸으로 여기며, 당시 가운데 있어서도 盛唐의 시를 최고로 든다. 이는 초당 이래로 開元까지의 평온했던 시대에서 모든 기초가 다져졌고 당시 시인들의 비범한 재능과 창조적인 정신이 합쳐지고 天寶이후의 안사의 난 등과 같은 쓰라린 사회상 등이 반영되면서 시의 황금기인 성당의 시대가 도래 하게 되었다.

12) 楊克炎 選注, 위의 책, pp.15-16.

13) 典型의 사전적 의미는 ①같은 부류 안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특성, 또는 그런 특성을 가진 대상을 말하거나 ②기준이나 규범이 되는 형을 가리킨다. 여기서 전형의 의미는 5언절구나 7언절구 등처럼 일정하게 정해진 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논서시가 이백과 두보를 통하여 일반화되면서 懷古詩나 紀行詩 등처럼, 외형적인 것이 아닌 내용적으로, 하나의 일반적인 類型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성당의 시대에 활동하였던 주요 시인으로 王之煥(688-742)孟浩然(689-740)·王昌齡(698-756)·王維(701-761)·崔顥(704-754)·高適(707-765)·岑參(715-770)·裴迪(716-?)등을 들 수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사람은 역시 李白과 杜甫이다. 이 두 대시인은 각각 詩仙과 詩聖으로 호칭되며 중국 전체 詩史에서 가장 우뚝한 위치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인들이 시를 배우고 창작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은 논서시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 두 대시인에 이르러서 논서시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그것이 갖추어야 할 典型이 형성되게 된다. 『全唐詩』에 실려 있는 그들이 논서시는 당대에 창작된 전체 논서시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詩壇에서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치만큼 그들의 논서시는 후인들의 指南이 되었다.<sup>14)</sup>

그렇다면 그 전형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는 내용과 형식으로 구분해서 살펴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蔡顯良은,

이백은 성숙기를 집대성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하나는 글씨를 읊은 시가 가장 많아서 모두 5首이고, 제재 또한 광범위하여 書家·書作·書具를 모두 다루고 있다. 둘은 확하고 고묘한 서예의 審美觀念인 ‘入神’이 있는데, 李頎의 ‘放神’의 설을 이어서 두보와 후대의 ‘通神’의 효시가 되었다. 셋은 李白詩의 言語가 힘참을 알 수 있고 想像이 奇絶하여 후세의 전범이 되었다.<sup>15)</sup>

라고 하였다. 그는 당대 논서시의 발달 단계를 發軔·成熟·發展의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발인의 단계에서는 李嶠(690-751), 성숙의 단계에서는 이백, 발전의 단계에서는 이백을 대표자로 들고 있다. 여기서 그는 李嶠의 「書」를 본격적인 당대 논서시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이는 唐이전의 논서시들이 주로 文房四友 등을 읊은 詩들이

14) 李起範, 「清代 論書詩에 나타난 學書傾向과 書藝美學」,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 2011, pp.22-23.

15) 蔡顯良, 앞의 논문, p.7.

대부분 이었는데, 이 詩는 문자의 기원과 書藝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숙기의 대표자로 이백을 드는 이유는 가장 많은 5首의 論서시가 있고, 그 詩들이 제재적인 면에서도 전대의 論서시가 문방사우 일변도의 시인데 반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영역을 넓혀서 후대의 표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王右軍」이란 詩는 다른 사람의 글씨를 폄평하는 論서시의 표준이 되었고, 「草書歌行」은 書體의 形態美를 描寫한 論서시의 표준이 되었으며, 「送賀賓客歸越」은 書家의 成就를 노래한 論서시의 표준이 되었다.

唐代的 論서시 가운데에 가장 많은 詩가 남아 있는 사람은 杜甫로, 12首의 詩가 전한다<sup>16)</sup>. 그는 唐詩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여겨졌고, 후대에 있어서 唐詩를 배움에는 대체적으로 杜甫를 모범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의 論서시는 여러 면으로 後代의 典範이 되었다. 그의 시 가운데에 후인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에 대하여 蔡顯良은,

杜甫는 곧 당대 論서시 발전의 중추적인 인물로, 論서시 혹은 서예를 논한 시는 12首가 있으며, 「觀薛稷少保書畫壁」·「殿中楊監見示張旭草書圖」·「飲酒八仙歌」·「李潮八分小篆歌」가 가장 유명하다. 그의 시는 李頎와 李白 등의 기초위에서 예술풍격이 더욱 높아지고 성숙되었다. 더욱이 「李潮八分小篆歌」는 韋應物과 韓愈, 蘇軾에 이르기까지의 「石鼓歌」 및 기타 篆隸歌詩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李頎와 李白은 당대 草書歌詩에 모범을 제공하였고, 두보는 주요한 영향 범위는 篆隸歌詩에 있다.<sup>17)</sup>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두보의 높은 詩적 成就와 후인들이 詩를 배움에 있어서 杜詩를 기초로 했던 일반적인 경향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詩의 體制나 素材 등 모든 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주었지

16) 아래의 인용문에서 蔡顯良은 두보의 論서시를 11수로 보고 있으나, 張學鵬과 같은 연구자들은 「丹青引贈曹將軍霸」도 論서시에 포함시키고 있다. (張學鵬, 「杜甫論書詩研究」, 碩士學位論文, 河北大學, 2010.)

17) 蔡顯良, 앞의 논문, p.9.

만, 논서시 부문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篆書와 隸書 계열의 詩들임을 알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후대의 논서시들을 살펴 볼 때에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글씨나 書家에 대한 품평이다. 따라서 어느 면으로서는 논서시라는 것은 대체로 評論을 위한 것이라고 그 특징을 말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논서시는 순수하게 글씨를 쓰는 방법인 書法, 서예의 역사를 다룬 書藝史, 작가의 인물 고하를 다룬 人物의 品評이나 作品의 品評 등이 순수하게 그 분야만으로 全篇의 시가 이루어진 경우는 많지 않다. 일부 문방사우 등 서사용구를 다룬 논서시 이외에는 대부분 작가의 人物評과 書法 등이 어우러져 한 편의 시를 이루고 있으니, 이백과 두보의 17 수의 시를 적절하게 분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편의상 내용에 따라 첫째, 글씨를 품평한 시, 둘째, 書體의 形態美를 묘사한 시, 셋째, 書家의 成就를 노래한 시, 넷째, 論書絕句의 호시가 된 시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 1. 글씨를 품평한 시

글씨를 품평한 시는 다른 사람의 글씨를 품평하여 高下를 논하거나 글씨를 쓰는 방법인 書法을 논한 시를 포괄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이백의 시는 「王右軍」 한 수 이고, 두보의 시로는 「觀薛稷少保書畫壁」과 「贈秘書監江夏李公邕」·「寄張十二山人彪三十韻」·「丹青引贈曹將軍霸」·「壯游」가 있다. 모두 그 사람의 됄됨이 논하면서 글씨를 품평하고 있는데, 이백의 시는 『古文眞寶』에 실린 만큼 유명하여 널리 애송되면서 후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글씨를 품평하는 시의 범본이 되었다. 이백의 「王右軍」은 다음과 같다.

右軍本清真<sup>18)</sup>

왕희지는 본래 맑고 참되어서

瀟灑出風塵<sup>19)</sup>

소쇄하여 속세에 메이지 않았네.

山陰遇羽客 <sup>20)</sup>	산음에서 도사를 방문하니
愛此好鶩賓 <sup>21)</sup>	거위를 좋아하는 손님을 좋아하였네.
掃素寫道經 <sup>22)</sup>	비단에 도덕경을 휘호하니
筆精妙入神	붓의 정묘함은 입신의 경지에 들었구나.
書罷籠鶩去 <sup>23)</sup>	글쓰기 마치고 거위를 조롱에 넣어 떠나니
何曾別主人 <sup>24)</sup>	어찌 일찍이 주인과 작별 인사인들 하였으랴!

후세 사람들로부터書聖이라 칭하여지는王羲之(307-365)는東晉의 서예가로, 당시에 집권세력이었던 명문귀족 출신이었다. 그는 후세 사람들로부터 천하제일의 행서로 일컬어지는『蘭亭序』와『十七帖』등 많은 작품을 남기었는데, 이 시는 중국 서예사에서 최고의 서예가로 칭하여지는 왕희지에 대한 尊崇과 그의 인품과 예술에 대한 品評의 시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를 통하여 당대 전반기가 얼마나 왕희지에 경도되어 있었던가를 짐작 할 수 있다.

시의 첫머리에 “왕희지는 본래 맑고 참되어서(右軍本清真), 소쇄하여 속세에 메이지 않았네(瀟灑出風塵).”이라고 품평한 구절은, 글씨와 人品을 연관 지어 품평한 최초의 논서시로, 후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글씨를

- 
- 18) 右軍 : 왕희지가 일찍이 우장군의 벼슬을 하였으므로 그렇게 칭한다. 清真 : 맑고 참됨.
- 19) 瀟灑 : 정신과 행동이 자유로워 구속을 받지 않음. 風塵 : 속세.
- 20) 山陰 : 현의 이름. 지금의 浙江 紹興. 過 : 방문하다(拜訪). 羽客 : 도사를 가리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신선은 날개옷을 입고, 도가에서는 신선을 배우기 때문에 도인을 羽客 혹은 羽人이라고 한다.
- 21) 愛此 : 주인이었던 도사도 손님인 왕희지를 좋아했다는 의미임. 好鶩賓 : 거위를 좋아하는 손님. 왕희지가 거위를 좋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칭하였다.
- 22) 掃素 : ‘素’는 본래 흰 비단을 지칭하지만 흰 종이를 가리키기도 하여, 흰 비단이나 종이 위에 글씨를 쓰는 것을 말한다. 道經 : 도가의 경전인 『道德經』을 지칭하는 것으로, 왕희지가 쓴 것은 글자의 획이 정미하여 매우 유명하였다.
- 23) 籠鶩 : 대그릇에 거위를 넣었다는 뜻임.
- 24) 『全唐詩』 卷上, 上海古籍出版社, 1986, p.422.

품평하는 논서시를 지음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 곧 왕희지의 본성이 맑고 참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품도 세속에서 벗어나 고매할 수 있었고, 이는 그의 매이지 않고 자유스러우면서도 저절로 이치에 맞는 글씨의 品格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왕희지가 살았던 동진은 老莊思想이 성행하여 유가의 예법보다는 얽매이지 않은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왕희지 또한 그러하였고 이백의 시풍 또한 그러하였으니, 이백이 왕희지를 존송함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시의 마지막 두 구는 그의 매이지 않은 호방한 성격이 잘 드러나는데, 『莊子』의 “得魚忘筌”처럼 거위를 얻었으면 그만이지 걸 치레와 같은 인사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백 자신의 생각과 왕희지를 동일시하려는 그의 사유가 잘 드러나 있다. 이와 비교하여 두보의 「觀薛稷少保書畫壁<sup>25)</sup>」를 보자.

少保有古風	소보가 고풍이 있나니
得之陝郊篇 <sup>26)</sup>	협교편에서 얻을 수 있다네.
惜哉功名忤	슬프도다! 공명을 거스르니
但見書畫傳 <sup>27)</sup>	전하는 글씨와 그림만 볼 수 있을 뿐이네.

25) 薛稷: 자는 嗣通이며, 蒲州의 汾陰 사람이다. 관직은 太子太保와 禮部尙書까지 올랐다. 그의 서법은 褚遂良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당나라 中宗 때에는 漢·魏 시대의 碑刻을 매우 중시했는데, 평론가들이 “설직이 저수량의 서법을 익혔을 뿐 아니라 새롭고 기이한 경지를 열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설직이 비각의 필법을 잘 흡수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작품은 「信行禪師碑」이다. 그는 저수량과의 으뜸가는 인물이었으나, 歐陽詢·虞世南·저수량과 같이 새로운 서법의 일파를 창시하지는 못했다. 그의 동생 薛曜도 저수량의 서법을 익혀서 독자적인 풍격을 이루었다. 설요의 작품인 「夏日遊石淙詩序」는 억세면서도 굴곡이 많은데, 이는 柳公權과 宋(960-1279) 徽宗의 서법 풍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설직은 또한 그림에도 뛰어났는데 특히 鶴 그림을 잘 그려서, 李白·杜甫가 모두 시를 지어 그의 그림을 칭송했다. 『唐朝名畫錄』에서는 그의 그림을 神品으로 분류했다.

26) 설직이 지은 「陝郊詩」에 고풍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杜詩諺解』, 도서출판 다운샘, 1988, p.415.)

我遊梓州東	내가 재주의 동쪽에 노닐 때
遺跡涪江邊	남긴 자취 부강 가에 있도다.
畫藏靑蓮界 <sup>28)</sup>	그림은 불사에 소장되어 있고
書入金榜懸 <sup>29)</sup>	글씨는 금테 두른 액자에 들었구나.
仰看垂露姿	수로의 자태를 우러러 보니
不崩亦不騫	무너지지도 않고 허물어지지도 않도다.
鬱鬱三大字 <sup>30)</sup>	기운 무성한 세 큰 글자는
蛟龍岌相纏 <sup>31)32)</sup>	교룡이 엉겨 높이 테를 둘렀네.
… 下略 …	

이 시는 예서와 저수량체를 잘 썼던 설직의 글씨와 그림을 예찬한 것이다. 시의 전체적인 구성은 설직의 문학적인 경향과 그 성과가 함축되어 있는 「협교편」을 거론하며 그의 문학적인 재능을 칭찬 후에, 시선을 글씨와 그림으로 옮겨서 묘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위의 두 시들은 각각 그 대상과 묘사한 시어들은 다르지만 이백은 왕희지의 인품을 언급하여 그것을 글씨와 연결 지었고, 두보는 설직의 문학적인 소양과 성공을 언급한 뒤에 그것을 그의 글씨와 연결시킨 것은 같은 두 시가 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들이 가지는 의의는, 논서시 중에서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폄평한 최초의 시이며 그것의 전개 방식이 후대의 그러한 시들의 범본이 되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글씨와 人品, 혹은 문학적인 성과를 연관 지어

27) 직이 太平公主의 일에 연루되어 賜死됨을 말한다.

28) 靑蓮界: 청련계는 佛寺를 말한다.

29) 직이 梓州의 慈覺寺院額과 大藏板壁에 글씨를 썼다. (『杜詩諺解』, p.415.)

30) 설직이 쓴 慧普寺碑 세 글자는 글자의 크기가 3척 쯤 되는데 필획이 웅건하고 힘차다.

31) 세 글자의 곁에서 鼉(구룡을 닮은 상상의 동물)가 엉겨 글씨를 받들고 있는 것이 곧 “蛟龍岌相纏”이라고 『補注杜詩』에서는 밝히고 있고, 『杜詩諺解』에는 교룡은 편액의 둘레에 그려진 그림이다. (『杜詩諺解』, 도서출판다운샘, 1988, p.415.)

32) 『全唐詩』 卷上, 上海古籍出版社, 1986, pp.524-525.



품평한 최초의 논서시이기도 하다. 이백이 노장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내세운 ‘入神’의 개념은 두보와 소식은 ‘通神’ 후대의 논서시들에서 두고 두고 차용되었다. 후대의 논서시는 주로 다른 사람의 작품을 품평하는 용도로 가장 널리 사용되었다는 점과, 이백과 두보의 중국 시사에 있어서의 위치만큼 그들의 시는 후인들이 논서시를 창작하는데에 지남이 되었다. 아울러 이백의 「王右軍」은 그 대상이 서성 왕희지라는 점에서 두고두고 후세시인들의 모범이 되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2. 書體의 形態美를 묘사한 시

서체의 형태미를 묘사한 시는 말 그대로 篆書·隸書·楷書·行書·草書와 같은 각 서체의 아름다움을 논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는 그 서체의 서법이나 그 서체를 잘 쓰는 사람의 평까지도 겸하고 있어서 분류상의 모호한 점도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백의 시는 「草書歌行」과 「獻從叔當塗宰陽水」이 있고, 두보의 시로는 「殿中楊監見示張旭草書圖」·「李潮八分小篆歌」·「送顧八分文學適洪吉州」·「觀公孫大娘弟子舞劍器行并序」·「醉歌行」·「飲酒八仙歌」가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8 수의 시 가운데에 草書에 관한 것이 5 수이고, 篆書와 隸書에 관한 것이 3 수이다. 이러한 논서시의 분포는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당시 서단의 상황과 서예가들의 관심을 잘 보여주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논서시로써 가장 널리 알려지고, 그 성취도가 높은 시라고 여겨지는 것은 이백의 「草書歌行」과 두보의 「殿中楊監見示張旭草書圖」·「李潮八分小篆歌」이다.

이백의 시 「草書歌行」<sup>33)</sup>은 장욱을 이어 성당시대 광초의 최 절정기를 이룩하였던 懷素(725-785)<sup>34)</sup>에 관한 것으로, 張旭에 관한 두보의 「殿

33) 草書歌行: 樂府體의 칠언고시로, 行은 악부에 붙는 가곡 이름이다.

34) 懷素: 중국 당나라의 서예가. 원래는 승려로, 자는 藏眞, 俗姓은 錢氏이다. 長沙 출생. 일찍이 불문에 들어갔으며 어려서부터 서도를 좋아하여 研鑽

中楊監見示張旭草書圖」와 함께 시와 초서와의 관계 및 성당시대 광초 유행의 면모를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少年上人號懷素 <sup>35)</sup>	젊은 스님은 호를 회소라 하는데
草書天下稱獨步 <sup>36)</sup>	초서가 천하에 독보적이라 하네.
墨池飛出北溟魚 <sup>37)</sup>	묵지에서는 북명의 물고기 날아오르고
筆鋒殺盡中山兔 <sup>38)</sup>	붓 만드느라 중산의 토끼 다 잡았대요.
八月九月天氣涼	팔월과 구월 천기가 서늘한 때에
酒徒詞客滿高堂 <sup>39)</sup>	술꾼과 문인이 고당에 가득 찼네.
箋麻素絹排數廂 <sup>40)</sup>	삼중이 흰 비단 여러 방에 늘어놓고
宣州石硯墨色光 <sup>41)</sup>	선주의 돌벼루에는 먹물 빛이 반짝인다.
吾師醉後倚繩床 <sup>42)</sup>	우리 스님 취한 뒤 승상에 기대어
須臾掃儘數千張	잠깐 사이에 수천 장을 다 써버리네.
飄風驟雨驚颯颯	회오리바람과 소낙비 같아 싸하는 소리에 놀라고
落花飛雪何茫茫	낙화와 비설 같아 얼마나 아득한가!

끝에 일가를 이루었다. 초서로 당시 張旭과 이름을 다투었다. 술을 좋아해서 만취가 되면 흥에 못 이겨 붓을 종횡으로 놀려 連綿體의 초서, 즉 狂草를 잘 썼다고 한다. 필적으로 『自敘帖』·『草書千字文』·『聖母帖』 등이 남아 있다

- 35) 上人: 불교에서 德, 智, 善行을 갖춘 사람을 이르는 말로, 나중에 스님에 대한 경칭으로 쓰이게 되었다.
- 36) 獨步: 여러 사람 가운데에 출중하다는 말,
- 37) 墨池: 벼루에서 물을 담은 오목한 부분인 硯池를 이룸. 벼루와 붓을 씻는 연못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北溟魚: 북쪽 바다의 물고기란 의미로, 『莊子·逍遙游』에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이름을 곤이라고 한다. 곤의 크기는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北溟有魚, 其名爲鯢, 鯢之大, 不知其幾千里也.)”라고 되어 있다.
- 38) 中山兔: 中山은 산이름으로 예로부터 예기에 사는 토끼털로 만든 붓을 최고로 쳤다. 江蘇省 溧水縣 동쪽의 兔山을 말한다.
- 39) 高堂: 남의 집을 높여 부르는 말. 혹은 높게 지은 집.
- 40) 箋麻: 麻紙 삼으로 만든 종이, 箋은 종이의 뜻이다. 素絹: 흰 비단.
- 41) 宣州: 지금의 安徽省 宣城縣임.
- 42) 繩床: 승려들이 사용하는 팔걸이 의자. 繩牀·胡床·交牀이라고도 한다.

起來向壁不停手	일어나 벽을 향해 손놀림 멈추지 않으니
一行數字大如斗	한 행에 몇 글자씩 크기가 한 말 정도라네.
恍恍如聞神鬼驚 <sup>43)</sup>	아찔하여 귀신이 놀라는 소리를 들은 듯하고
時時只見龍蛇走	때때로 용과 뱀이 달리는 것이 보이는 듯하다.
左盤右蹙如飛電	왼편으로 돌고 오른편으로 오므린 것이 번개 치듯 하고
狀同楚漢相攻戰	형세가 초나라와 한나라가 서로 싸우는 듯하네.
湖南七郡凡幾家	호남의 칠군의 거의 모든 집에
家家屏障書題遍	집집마다 그이 글씨 담긴 병풍이나 액자가 두루 퍼져 있네.
王逸少張伯英	왕희지와 장지는
古來幾許浪得名	예로부터 얼마나 부질없이 명성을 얻었던가?
張顛老死不足數	장옥은 늙어 죽었으니 따질 것도 없고
我師此義不師古 <sup>44)</sup>	우리 스님의 이러한 의범은 옛 것을 본받은 것이 아닐세.
古來萬事貴天生	고래로 모든 일은 타고난 것을 소중히 여기니
何必公孫大娘渾脫舞 <sup>45)46)</sup>	어찌 반드시 공손대량의 혼탈무가 있어야만 하겠는가?

후대의 사람들은 서예에 있어서 성당을 대표할만한 인물로 장옥을 들 것인가, 아니면 안진경을 들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대에 광초로 가장 각광을 받았던 사람은 회소였다. 현존하는 100 여 수의 唐代 논서시 가운데에, 회소의 광초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10 수로, 초서에 관한 시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절대적이었다. 이는 아마도 장옥에 의하여 일으켜진 광초의 유행은, 실로 회소에 의하여 그 절정기를 맞이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튼 이백에 의하여 일으켜진 초서가의 유행은 대대로 많은 아류를 탄생시켰으며, 성당 시대에만 해도 釋皎然的「張伯英草書歌」·王邕頁의「懷素上人草書歌」·蘇渙의「懷素上人草書歌」·馬雲奇的「懷素上人草書歌」·竇冀

43) 恍恍: 정신을 못차리는 모양.

44) 義: 儀자와 통하니, 法度·法則의 의미이다.

45) 公孫大娘: 唐代的 教坊妓로 劍舞에 뛰어났는데, 장옥이 그 제자의 검무를 보고 서법을 깨달았다고 전한다. 渾脫舞: 공손대량이 추었던 검무의 이름.

46) 『全唐詩』 卷上, 上海古籍出版社, 1986, p.394.

의 「懷素上人草書歌」·魯收의 「懷素上人草書歌」·朱逵의 「懷素上人草書歌」·許瑤의 「題懷素上人草書」·任華의 「懷素上人草書歌」·戴叔倫의 「懷素上人草書歌」 등이 지어졌다. 또 이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歌行體의 초서가는 후대로 가면서 점점 범위를 넓혀서 다른 서체나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가기도 하였다.

이백의 「草書歌行」은 이후로 이어지는 「懷素上人草書歌」들의 연작 행렬을 선도했다는 점 이외에도 다른 草書歌들의 범본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26구의 칠언고시로 이루어진 이 시는, 대체로 이후의 20~40여구의 고시로 이어지는 초서가 들의 전체적인 내용구성이나 시의 전개에 있어서 그 바탕이 되었다. 또한 그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이백의 詩句를 點化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비유는 후대의 여러 논서 시에서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아울러 정신의 구속됨이 없는 자유스러운 경지와 낭만적인 시풍은 후인들에게 많은 영감과 창작의 모티브를 제공하였다.

후대의 篆書와 隸書 계열의 논서시들에 많은 영향을 준 두보의 「李潮八分小篆歌」는 다음과 같다.

蒼頡鳥迹既茫昧 <sup>47)</sup>	창힐이 창제한 문자는 이미 아득해져
字體變化如浮雲 <sup>48)</sup>	자체의 변화는 뜬 구름처럼 알 수가 없네.
陳倉石鼓又已訛 <sup>49)</sup>	진창의 석고문 또한 이미 변화하여
大小二篆生八分 <sup>50)</sup>	대전에서 소전으로 또 팔분이 생겼구나.
秦有李斯漢蔡邕	진에는 이사, 한에는 채옹이 있고

47) 蒼頡: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제왕인 黃帝의 史官. 새와 짐승의 발자국을 본떠 최초로 문자를 창제한 사람이라 전해진다. 茫昧: 아득하여 분명하지 않음. 연대가 오래 되어 아득하여 찾아볼 수 없다는 뜻.

48) 浮雲: 서체의 변화가 뜬구름처럼 쉽게 변하여 알 수가 없다는 뜻.

49) 陳倉石鼓: 陳倉에서 출토된 북 모양의 돌로, 석고문은 이것의 돌레에 기록되어 있다.

50) 大小二篆: 周나라 太史 籀의 大篆과 李斯의 篆을 말함.

中間作者寂不聞	중간의 작자는 적막하여 듣지 못하였다.
嶧山之碑野火焚	이사의 역산 각석은 들불에 탔고
棗木傳刻肥失真	대추나무에 새긴 글씨는 참모습 잃었구나.
苦縣光和尙骨立	고현의 비와 광화의 비는 골 세움을 숭상하니
書貴瘦硬方通神	글씨는 가늘고 튼튼해야 신묘하네.
惜哉李蔡不復得	이사와 채옹 다시없어 안타깝지만
吾掇李潮下筆親 <sup>51)</sup>	내 생질 이조의 서예 그들과 가깝네.
... 下略 ...	

이 시는 28句로 이루어진 집언체의 七言古詩로, 이것이 후인들의 篆隸詩歌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篆書와 隸書를 다룬 최초의 논서시라는 것 이외에도, 문자의 창제와 서체의 변화 혹은 발전과정을 서술하면서 이와 연결시켜 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의 모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것은 韋應物(737-792)과 韓愈(768-824)의 「石鼓歌」에 그대로 차용 되었으며, 특히나 韓愈의 「石鼓歌」는 후인들이 次韻하여 지은 詩가 많이 전한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詩 속에 제시된 “尙骨立”은晉 衛夫人의 「筆陣圖」에 제시된 ‘骨氣’의 개념<sup>52)</sup>을 계승한 것으로 당시 서예를 기본적으로 하였던 문사들의 서예관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骨氣’의 개념은 글씨를 쓸 때 ‘瘦硬’함으로 발현되고 그래야 비로소 ‘通神’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가 篆隸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시를 지으면서 제시한 ‘骨氣’와 ‘通神’의 개념은 두 보의 ‘尙古’적인 심미척도<sup>53)</sup>를 나타낸 것으로, 이는 소동파에게 그대로 전해져 후대에 논서시들이 지어지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51) 『全唐詩』卷上, 上海古籍出版社, 1986, p.535.  
 52) 潘運告 編著, 『漢魏六朝書畫論』, 湖南美術出版社, 1997, p.95.  
 53) 方愛龍, 앞의 논문, p.91.

## 3. 書家の 成就를 노래한 시

서가의 성취를 노래한 시는 書家로써의 인물을 논한 시로, 글씨의 성취나 인품을 아울러 논한 경우도 있다. 이에 속하는 이백의 시는 「送賀賓客歸越」과 두보의 「壯游」가 있다. 이 중에 이백의 시가 유명한데, 이 시는 두보의 「飲酒八仙歌」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賀知章(659-744)<sup>54)</sup>에 관한 시이다. 이백이 그를 전별하며 지어주었던 「送賀賓客歸越」<sup>55)</sup>은 다음과 같다.

鏡湖流水漾清波<sup>56)</sup>      경정호에 흐르는 물은 맑은 파고 일렁이고  
 狂客歸舟逸興多<sup>57)</sup>      광객은 돌아가는 배에서 흥이 많겠지.  
 山陰道士如相見      산음의 도사를 만일 만날 수 있다면  
 應寫黃庭換白鵝<sup>58)59)</sup>      응당 『도덕경』을 써주고 흰 거위를 바꿨으리라.

- 54) 賀知章: 자는 季眞 · 維摩이며, 호는 四明狂客 · 秘書外監이다. 越州의 永興 출생이다. 695년에 진사에 등과하였다. 太常博士를 거쳐 725년 禮部侍郎, 이듬해 공부시랑, 이어 太子賓客 · 秘書監을 역임하였다. 玄宗을 섬겼고, 시인 李白의 발견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당대의 서가로도 유명하다. 나중에 관직에서 물러나 四明狂客으로 호를 붙이고 방종한 생활을 보냈으며, 杜甫의 「飲酒八仙歌」에도 등장한다. 唐 千寶 3년(744) 향리로 돌아와 도사가 되고 같은 해에 사망했다. 狂草로 널리 알려진 張旭 · 이백 등과 망년지교를 맺었고 행서 초서에 뛰어났다. 취할 때마다 능필을 휘둘러 내키는 대로 글씨를 썼다. 그의 서는 千眞을 득하고 高邁秀逸한 雅趣가 넘쳤다고 한다.
- 55) 賀賓客: 그가 太子賓客의 벼슬을 지냈으므로 “하빈객”이라고 한 것이다. 이 시는 그가 고향으로 귀향할 때에 현종이 鏡湖를 읊은 시를 내렸는데, 이백의 이 시도 그 때 지은 시이다.
- 56) 鏡湖: 호수의 이름으로 紹興의 남쪽 3리에 있다. 鑑湖 · 長湖 · 廣湖로 불리기도하며, 허지장이 고향으로 돌아가 이곳에서 은거 하였다.
- 57) 狂客: 허지장이 만년에 고향으로 돌아가 자호하기를 “四明狂客”이라 하였는데, 이를 말하는 것이다. 四明은 본래 浙江省에 있는 지명이다.
- 58) 黃庭: 『黃庭經』을 가리키는 것으로 道教의 경전 중의 하나임. 일설에는 왕희지가 써 준 노자의 『道德經』이라고도 함.
- 59) 『全唐詩』 卷上, 上海古籍出版社, 1986, p.411.

하지장과 이백은 42년의 나이차가 있었지만 망년지교를 맺었다고 전해진다. 특히 하지장은 이백의 「촉도난(蜀道難)」을 읽고 그를 하늘에서 귀향 온 신선이라는 뜻의 “적선(謫仙)”이라고 칭찬하였으며, 그를 당시의 문단에 소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술을 즐겼던 그들은 거나하게 술을 걸치고 취흥에 시를 읊으며 이를 거침없이 초서로 쓰기를 즐겼는데, 어느 날 술값이 떨어진 그들은 하지장이 차고 있던 금귀(金龜)<sup>60)</sup>를 맡기고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후일 이백은 금귀를 맡기며 술을 마시던 그 술집에서 세상을 떠난 하지장을 생각하며 읊은 「對酒憶賀監」에서 “사명광객이라 했던(四明有狂客), 풍류객 하지장은(風流賀季眞), 장안에서 처음 만났을 때(長安一相見), 나를 귀양 온 신선이라 불렀지(呼我謫仙人). 옛날 잔속의 술 좋아하더니(昔好杯中物), 지금 소나무 아래 흙이 되었네(今爲松下塵). 금귀를 술로 바꾸던 곳에서(金龜換酒處), 문득 생각에 눈물이 수건을 적시네(却憶淚沾巾).”라고 하며 그의 빈자리를 슬퍼하였다. 그만큼 하지장은 이백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을 이해하고 경향을 같이 했던 가장 중요한 사람 중의 하나였다.

이백은 25세에 고향을 떠나 온 후로 다시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였는데, 시의 첫 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즐겁고 경쾌한 심경을 하지장의 고향인 경호의 맑은 파도에 빗대어서 상쾌하게 표현하였다. 늙어서 관직을 그만두고 귀향하는 것이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무척이나 부러웠으리라. 그래서 둘째 구는 그는 돌아가는 배 속에서도 흥이 넘치리라고 하였다. 하지장은 오랜 관직 생활을 하며 唐代에 가장 박식한 다섯 사람 중의 한명으로 불리기도 한 名臣이었지만, 오랜 관직 생활로 86세가 되어서야 고향에 돌아오니 자기를 아는 이가 없었는가 보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향에 돌아와 붓 가는대로 쓰다(回鄉偶書)」에서 “젊어서 고향 떠나 늙어서 돌아오니(少小離家老大回), 고향 말씨 그대로인데 귀밑머리만 쇠하였네(響音不改鬢毛衰). 어릴 때 보았으나 서로를

60) 金龜: 관원이 차고 다니는 인장.

알지 못하니(兒童相見不相識), 웃으며 어디서 온 나그네냐고 묻더라(笑問客從何處來).”라고 읊기도 하였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세 번째와 네 번째 구는 이 시가 논서시가 됨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왕희지가 山陰 도사를 만나 『도덕경』을 써주고 거위를 얻은 고사를 인용하여, 하지장의 글씨가 서성인 왕희지에 견줄 수 있을 만큼 훌륭하다고 그의 서가로써의 성취를 찬미한 것이다.

#### 4. 論書絕句의 효시가 된 시

두보의 「戲爲六絕」은 최초의 ‘論詩詩’이다. 이 시는 칠언절구로 여섯 수로 육조시대 시인들의 시를 평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論詩絕句’라고도 하였다. 이러한 형식을 본받아 후대의 시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를 평론하는 시로써 논시절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논시절구란 여러 수의 절구를 연작형식으로 지어서 다른 시인의 시나 작풍을 평론한 시를 의미하게 되었다.<sup>61)</sup> 이러한 ‘論詩絕句’는 唐宋대에 많은 시인들에 의하여 지어졌고, 이를 통하여 서로의 시학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후 ‘논시절구’는 清代에 이르러 문학비평의 보편적인 흐름으로 자리하였다.<sup>62)</sup> 또한 시로 다른 시나 시인을 평론하는 습관은 다른 대상물로 옮겨져서, 중국문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 중에 하나인 서예나 그림, 인장 등 타 방면에까지 확산되었다. 이러한 ‘논시절구’를 표방한 ‘논서절구’는 ‘논시절구’와 마찬가지로 다른 書家의 작품이나 작풍을 비평하는 비평문학으로써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아울러 청대에 ‘논시절구’나 ‘논서절구’가 아직 일반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시에 관한 시는 ‘論詩詩’로, 서예에 관한 시는 ‘論書詩’로 불리게 되었다. 두보의 「戲爲六絕」은 다음과 같다.

61) 배규범, 「논시절구의 경향과 전개양상」, 『어문연구』 11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1. p.123.

62) 배규범, 위의 논문, p.124.



庾信文章老更成	유신의 문장은 늙어서 더욱 이루어졌으니
凌雲健筆意縱橫	구름을 뚫듯 한 빼어난 문장에 뜻 또한 자유로웠네.
今人嗤點流傳賦	요즘 사람들 전하는 「哀江南賦」를 비웃지만
不覺前賢畏後生 <sup>63)</sup>	전현의 후생이 두렵다는 말 깨닫지 못하였구나.

이 詩는 「戲爲六絕」 여섯 首 중에 첫 번째 詩로, 당시의 시인들이 六朝를 대표하는 시인인 庾信(513-581)을 폄하하는 것에 대한 변론의 詩이다. 나머지 다섯 首의 詩들도 初唐의 四大家인 楊炯( ? -692)·王勃(649-676)·盧照隣(637-689)·駱賓王(640-684)을 변호하는 七言絕句이다.<sup>64)</sup> 杜甫의 「戲爲六絕」은 詩로 詩를 논한 論詩絕句의 효시가 된 작품으로, 후대에는 매 首마다 대상을 바꿔가며 읊는 방식이나, 점점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묘사하는 방식으로 등으로 발전하였다. 論詩詩는 金나라의 元好問(1190-1257)에 이르러 七言絕句 30首로 그 체제를 정립하게 되었고, 清代에는 비평문학의 보편적인 흐름으로 자리하게 된다. 이러한 論詩絕句의 유행은 곧 論書絕句·論印絕句·論畫絕句·論藝絕句 등으로 확대되었고, 그 중에서도 논서절구가 가장 많이 창작 되었다. 이를 계승하고 있는 王文治(1730~1802)의 「論書絕句三十首」중 孫過庭에 관한 부분을 보도록 하자.

孫過庭	손과정
墨池筆塚任紛紛	먹물 못과 붓 무덤이 되도록 바쁘게 하여도
參透書禪未易論	서예의 오묘한 이치를 터득하기란 어렵다네.
細取孫公書譜讀	자세히 손과정의 『書譜』를 읽어보면
方知渠是過來人 <sup>65)</sup>	바야흐로 손과정이 그 사람임을 알리라.

63) 『全唐詩』 卷上, 上海古籍出版社, 1986, p.556.

64) 李丙疇, 『杜甫』, 민음사, 1993, p.173.

65) 沈培方·洪丕謨, 『歷代論書詩選注』, 上海書畫出版社, 1987, pp.70-71.

이 시는 서예의 오묘한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손과정이고, 그것은 『書譜』 속에 잘 나타나 있으니 이를 잘 공부하여야한다는 후인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왕문치는 이처럼 30수의 시 속에 매 수마다 그 대상을 바꿔가며 후인들이 배워야할 점을 들고 있어서 두보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대의 논서절구는 그 형식면에 있어서는 대부분 칠언절구를 사용하며, 적개는 4~5首에서 많게는 100餘首에 이르는 것도 있다. 묘사방식에 있어서는 매 首마다 대상을 바꿔가며 읊는 방식이나, 점점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묘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서절구 양식은 조선후기 豹菴 姜世晃(1712-1791)·紫霞 申緯(1786~1845)·秋史 金正喜(1786 ~1856)·恩誦堂 李尙迪(1804-1865)·石亭 李定穰(1841-1910) 등의 논서시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淸 뿐만 아니라 朝鮮에도 논서절구의 양식을 본받은 논서시들이 광범위하게 창작되었는데, 이들이 모두 두보의 「戲爲六絶」의 체제를 본받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 IV. 論書詩에 나타난 美學思想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William James(1842-1910)가 생각이 말과 행동이 되고, 결국 그것이 인격을 형성하고 인생이 된다고 하였듯이, 한 시대에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가지는 사유체계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본 장에서는 이백과 두보의 논서시에 나타나는 미에 대한 사유체계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논서시에 당시의 서단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심미의식은 무엇이고, 그것은 후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밝히는데 있다. 그들의 논서시에 나타난 미학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瘦硬’, ‘通神’, ‘尙古’인데, 이들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고자 한다.

## 1. 瘦硬美

‘瘦硬’을 강조하는 것은 도가적이고 자유로웠던 이백보다는, 무엇인가 체계적이고 정갈한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두보에게서 강하게 나타난다. 두보가 「李潮八分小篆歌」에서 “글씨는 가늘고 튼튼해야 정신이 통하네(書貴瘦硬方通神).”라고 제시한 瘦硬美는, 살찌지 않으면서도 건실하고 튼튼한 획이 주는 아름다움을 이른다. 초당의 서예는 隋의 연장선상 위에 있는데, 초당삼대가인 歐陽詢·虞世南·褚遂良의 楷書에서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난다. ‘瘦硬’이란 용어는 다른 말로 ‘骨氣’ 혹은 ‘骨力’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예로부터 힘이 있는 글씨를 숭상한 데에서 생긴 것으로, 이러한 용어가 출현한 것은 대략 위진남북조시대대로 보여 진다. 그 시대에는 비록 다양한 논서시는 남아 있지 않지만, 서예가 독립적인 예술지위로 인정받으면서 많은 書論들이 저작되었다. 晉의 衛夫人은 『筆陣圖』에서 “필력이 좋은 것은 골력이 많고, 필력이 좋지 못한 것은 획에 살이 많다. 골력이 많고 획에 살점이 적은 것을 근서라 하고, 획에 살이 많고 골력이 적은 것을 묵저라 한다. 힘이 많고 근력이 풍부한 것은 좋은 글씨이고, 힘이 없고 근력도 없는 것은 좋지 못하다.”<sup>66)</sup>라고 하였다. 또 당대의 손과정은 『書譜』에서 “만일 여러 오묘한 것이 갖추어지게 하려면 골기를 보존하는 데에 힘쓰라. 골력이 이미 갖추어지면 굳세고 윤택함을 가미하여야 한다.”<sup>67)</sup>라고 하였다. 이처럼 골력은 좋은 글씨를 쓰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지만, 오로지 골력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근력을 같이 겸비하여 윤택하여야 한다는, 양단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이 전통적인 사상이다. 이러한 미의식은 당대가 되면서 서예 이

66) 潘運告 主編, 앞의 책, p.95, “善筆力者多骨, 不善筆力者多肉. 多骨微肉者謂之筋書, 多肉微骨者謂之墨豬, 多肉微骨者謂之墨豬. 多力豐筋者聖, 無力無筋者病.”

67) 中田勇次郎 編集, 『中國書論大系』第二卷, 二玄社, 1978, p.127, “假令衆妙攸歸, 務存骨氣. 骨既存矣, 而過潤加之.”

론가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되었다.

‘瘦硬’과 상통되는 ‘骨氣’라는 개념을 논서시에 최초로 도입한 사람은 초당의 李嶠이다. 그는 「書」라는 시에서 “세로획은 봄별이 가득하고(垂露春光滿<sup>68</sup>), 횡획은 골기가 넘치는구려(崩雲骨氣餘<sup>69</sup>).”라고 하였는데, ‘骨氣’를 ‘瘦硬’으로 點化하였다.

두보의 수경미를 중요시 하는 사상은 글씨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전반에 걸쳐 가졌던 포괄적인 것이었다. 그는 「韋諷錄事宅觀曹將軍畫馬畫引」에서 “당나라 초기 이후에 안장 놓은 말 그림 중에서(國初已來畫鞍馬), 신묘함에 있어 오직 강도왕을 꼽았는데(神妙獨數江都王)…… 그때 뛰며 달리던 말이 수없이 많아 삼만 필이나 되었었는데(騰驤磊落三萬匹), 모두가 이 그림의 말과 근육이나 골격이 같았다네(皆與此圖筋骨同).”라고 하여 ‘筋骨’을 사물의 요체로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그의 ‘瘦硬’은 마른 것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균셈에 있지만 그렇다고 마르지않음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李鄴縣丈人胡馬行」에서 “노인은 준마를 호류라고 이름지었으니(丈人駿馬名胡驪), 지난 해 오랑캐를 피하여 금우 지방을 지났네(前年避胡過金牛). …… 신통처럼 특

68) 垂露: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세로획의 收筆하는 곳에서 바로 出鋒하지 아니하고 붓끝을 모아 안으로 감싸 드러나지 않게 하는데 마치 이슬방울과 같이 하는 것으로, 垂露篆의 세로획을 쓰는 방법을 나타낸다. 다른 하나는 垂露篆 자체의 서체를 의미한다. 수로전은 소전의 한 서체로, 漢의 曹喜가 이 서체를 잘 써서 漢 章帝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 朱長文은 『墨池編』에서 “그 점이 이어진 것이 마치 가벼운 이슬과 같다(其點綴如輕露)”라고 하였다.

69) 崩雲: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橫畫에서 구름이 펼쳐지는 것 같은 筆勢를 취하는 것으로, 『唐人書評』에는 “양희지의 글씨는 장사가 검을 뽑는 듯하고, …… 횡획을 쓸 때에는 마치 천리에 구름이 펼쳐져 있는 것과 같아(王羲之書如壯士拔劍, …… 作一橫畫, 如千里陣雲).”라고 하였다. 다른 하나는 서체로써의 ‘雲書’를 말한다. 唐의 韋續은 『墨藪』에서 운서는 고대의 象形書 중의 하나로 필획이 모양이 구름과 같으며, 黃帝 때에 卿雲(=慶雲)이 나타나서 운서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별한 종자가 있음을 비로소 알았으니(始知神龍別有種), 저속한 말들 공연히 살찐 것과 비교되지 않는구나(不比俗馬空多肉).”라고 하여 힘찬 것은 살찌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위부인이 말한 필력이 좋은 것은 골력이 많고, 필력이 좋지 못한 것은 획에 살이 많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외에도 여러 시에서 ‘骨力’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의 ‘瘦硬’의 미학은 그의 사상 저변에 깔려 있는 철학이고, 그것을 통하여 ‘通神’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부인이 제시한 ‘骨’의 개념은 후대로 내려오면서 여러 서론들에서 ‘骨氣’ 혹은 ‘骨力’으로 사용되다가, 初唐에 李嶠에 의하여 논서시에 ‘骨氣’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두보는 서예의 요체를 ‘瘦硬’의 개념으로 정리하여 후대의 ‘骨氣論’을 펼친 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 2. 通神美

앞에서 언급한 ‘瘦硬’과 함께 중요한 미학사상이 ‘通神’이다. 두보는 ‘瘦硬’하여야만 ‘通神’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瘦硬’은 ‘通神’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通神’이 서가의 최종 목표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通神’이란 ‘정신이 통한다’, 또는 ‘정신을 통하게 한다’는 뜻으로 외재적 형상인 ‘瘦硬’을 통하여 극도의 정신미에 나아가고자함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두보의 시에는 ‘瘦硬’이나 ‘骨力’·‘骨氣’ 등의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지만, 이보다도 清代 朱鶴齡의 『杜工部詩輯注』에 실린 ‘神’자의 통계는 50여 수의 시에 등장<sup>70)</sup>하니 그가 추구하는 미학적 목표를 알 수 있다.

두보가 추구하는 ‘通神美’는 오로지 그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일찍이 南朝의 王僧虔은 『筆意贊』에서 “서예의 오묘한 경지는 정신과 풍채를 으뜸으로 치고, 형태와 본질이 그 다음이다.”<sup>71)</sup>라고 하여

70) 張學鵬, 「杜甫論書詩研究」, 河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p.23.

71) 潘運告 主編, 앞의 책, p.171, “書之妙道, 神彩爲上 形質次之。”

정신과 더불어 풍채를 중시하였다. 初唐의 虞世南은 “이는 반드시 맑은 마음이 생각을 움직여 미묘한 사이에 이르게 하니, 정신은 생각의 투철함에 응하게 된다.”<sup>72)</sup>라고 하여 정신은 맑은 마음에 의하여 응하게 됨을 이야기 하고 있다. 宋代 李之儀는 두보보다 후대의 인물이지만 서예와 정신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는 『姑溪集』에서 “무릇 글씨란 정신을 으뜸으로 하고, 짜임새를 그 다음으로 하고, 위치의 안배를 그다음으로 여긴다.”라고 하였다. 또 清代의 劉熙載는 『書概』에서 “글씨는 정신으로 들어감을 귀하게 여기니, 정신에는 나의 정신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정신과 구별되어야 한다.”<sup>73)</sup>라고 하여 정신으로 들어감을 중시 하였다.

논서시에 ‘神’의 개념을 가장 먼저 도입한 사람은 초당의 李頎(690-751)이다. 그는 「贈張旭」에서 “하찮은 봉록에는 마음 두지 않고(微祿心不屑<sup>74)</sup>), 오로지 정신은 팔극에 노니네(放神于八紘<sup>75)</sup>).”라고 하여 ‘放神’을 언급하였다. 여기서 ‘정신은 팔극에 노닌다’는 것은 ‘정신의 구속됨이 없는 경지(放神)’를 추구한 것이다. 이는 어떤 일에 정신을 집중하여 무아의 경지가 되는 것을 이르는 것으로, 두보의 ‘通神’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기의 ‘放神’의 미학사상을 이은 사람은 이백이다. 그는 「王右軍」에서 “비단에 도덕경을 휘호하니(掃素寫道經), 붓의 정묘함은 입신의 경지에 들었구나(筆精妙入神).”라고 하였는데, 이백은 단순히 그러한 개념을 이은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그의 내면의 노장적 사유와 융화시켜 ‘入神’이란 시어로 표출하였으니, 이러한 사상은 두보와 소식에게 그대로 전해져 ‘通神’이란 시어로 표출 되었다. 그가 제시한 시어와 상상의 오묘함이란, 일반적인 이백시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의 시어는

72) 潘運告 主編, 『初唐書論』, 河南美術出版社, 1997, p.66, “必在澄心運思, 至微妙之間, 神應思徹。”

73) 劉熙載 著·高畑常信 譯, 『書概』, 雲林堂, 1986, p.227, “書貴入神, 而神有我神他神之別。”

74) 微祿: 아주 적은 녹봉.

75) 八紘: 팔방의 너른 범위라는 뜻으로, 온 세상을 이르는 말. 紘은 땅 끝이다.

호방하면서도 낭만주의적 색채가 강하여, 이러한 시풍을 따르는 후세의 시인들이 그의 시어를 많이 차용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 3. 尙古美

이백과 두보 모두 상고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이백이 생각하는 상고란 기본적으로 옛사람의 글씨, 곧 왕희지에 대한 숭상이었고, 두보의 상고란 단순히 옛사람의 글씨만을 숭상하는 것이지만 아니라 篆隸의 서체와 고풍을 숭상하는 것을 말한다.

성당의 시대는 질편한 음주문화와 그 감회를 읊은 시, 그리고 그것을 즉석에서 초서로 쓰는 것이 유행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玄宗 주도로 篆隸, 특히 隸書를 권장하여 특정의 작가들을 그것들을 전문적으로 창작하기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裴奎河는,

開元 연간의 서예가 가운데 賀知章, 張旭, 李邕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서예가가 隸書를 집중적으로 창작하였음을 살펴볼 때 시대의 흐름이 서체의 유행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다.<sup>76)</sup>

이 시대의 예서는 漢代의 예서와 달리 필획이 둥글고 파책이 풍만하여 당인들의 미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두보도 篆隸를 숭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서체만을 숭상하는 것이 아니라 옛 정신을 숭상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는 「李潮八分小篆歌」에서,

… 上略 …

惜哉李蔡不復得	이사와 채옹 다시없어 안타깝지만
吾甥李潮下筆親	내 생질 이조의 서예 그들과 가깝네.

76) 裴奎河, 앞의 책, p.41.

… 中略 …  
 八分一字直百金      팔분서 한 자에 백금의 가치 있고  
 蛟龍盤拏肉屈強      교룡같이 획 구불구불 굳세구나.  
 吳郡張顛夸草書      오군의 장육이 초서를 자랑하나  
 草書非古空雄壯      초서는 옛 것이 아니라 웅장함이 부족하네.  
 豈如吾甥不流宕<sup>77)</sup>      어찌 내 생질 서예 가지런함과 같으리?  
 … 下略 …

라고 하여, 李潮의 小篆과 八分을 칭찬하면서 이것이 이사의 전서와 채옹의 예서와 같은 풍모를 가졌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하였다. 이는 마치 동한시대에 崔瑗(78-143)이 「草書勢」를 써서 초서의 장점과 아름다움을 설파하자 趙壹이 「非草書」를 써서 유가적 입장에서 초소를 비판한 것과 같다. 두보의 읍시는 철저히 정제된 규율미가 있듯이 그의 서예관은 자유분방함 보다는 웅장하고 정제된 尙古의 美를 숭상하고 있다. 그는 또 「寄張十二山人彪三十韻」에서 “초서가 어찌 태고의 것인가?(草書何太古), 시의 흥취만은 신묘하지 않음이 없네(詩興不無神).”라고 하여 초서는 聖人이 만든 것이 아니라 今人들이 時事의 편리성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조일의 설과 유사한 면이 있다.

두보의 상고와 달리 이백은 오로지 왕희지를 숭상하고 있다. 이는 어떤 각도에서 보면 왕희지가 蘭亭의 禊事에서 醉興에 천하제일의 글짜라는 「蘭亭序」를 남긴 것과 무관하지 않은 면이 있기도 하다. 그는 賀知章, 張旭, 懷素 등과 취흥에 시를 짓고 이를 일필휘지로 쓰기도 하고 이들 서예가들을 찬미하기도 하였지만, 그의 의식 속에는 늘 왕희지가 있었다. 두보의 상고 속에서도 晉人을 숭상하는 면이 있는데, 「殿中楊監見示張旭草書圖」에서,

77) 『全唐詩』 卷上, 上海古籍出版社, 1986, p.535.



… 上略 …

俊拔爲之主 <sup>78)</sup>	준수한 기운은 서예의 핵심인데
暮年思轉極	노년에 이르러 생각이 극에 달하구나.
未知張王後	장지와 왕희지 이후에
誰并百代則	누가 백대의 법칙이 될까?
嗚呼東吳精 <sup>79)</sup>	아! 동오의 빼어난 이 장옥은
逸氣感清識 <sup>80)81)</sup>	탈속한 서풍으로 구안자를 감동시키네.

… 下略 …

라고 하여 어느 정도 장옥의 글씨를 인정하고, 장지와 왕희지를 서가들이 모범으로 삼아야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이백의 상고는 왕희지에 대한 추앙이었고, 두보의 경우는 篆隸에 대한 동경이었다. 두 사람 모두 현실에 대한 불만족의 방편으로 상고를 주장하지만, 이백은 도가적 이상세계로의 도피적 경향이 강하였고, 두보의 경우는 유가적 이상세계로의 복귀였다.

## V. 結論

이백과 두보는 성당을 대표하는 시인들이었고, 서예 분야에는 장옥과 안진경을 대표자로 본다. 이들의 관계는 각 분야에서 각각 성당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이들은 사승관

78) 俊拔: 『補注杜詩』에서는 필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이라 하였고, 『杜詩詳註』에서는 초서의 筆訣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79) 東吳精: 동오의 정기를 본받는다라는 말이다. 장옥은 본래 동오의 蘇州이다. 李頎의 시 「贈張旭」에서는 동호에 있는 호수의 이름을 빌려와 “太湖精”이라 하였다.

80) 逸氣: 世俗에서 벗어난 기상. 뛰어난 기상. 感清識: 장옥의 逸氣가 殿中監인 楊炎의 清識을 감동시키는 까닭으로 항상 보면서 휘호할 때를 생각하는 것을 이른다.

81) 『全唐詩』 卷上, 上海古籍出版社, 1986, p.530.

계가 있기도 하다. 두보는 젊은 시절 이백과 교유하며 이미 문단의 중진이었던 이백으로부터 시법을 배웠다고 전해지고, 안진경은 장옥에게 나아가 12필법을 전수받고 서법을 크게 깨쳤다고 하니, 한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는 어느 한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당대에는 문장의 저작물이 대부분 붓에 의하여 필사되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이미 서예가 하나의 독립된 예술로 인정받고, 다른 사람의 글씨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미 필사자의 학식이나 연품까지도 고려되었던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이백과 두보는 이전까지의 서론들을 논서시로 녹여내어, 중국 시학사에서 새로운 분야인 논서시가 형성되도록 그 전형을 형성하였다.

이백과 두보가 남긴 17 수의 시를 형식과 내용으로 구분해 볼 때, 형식적으로는 후대의 논서시에 대하여 하나의 전형을 형성하였다. 그들의 논서시는 포괄적으로 첫째, 글씨를 폼평한 시, 둘째, 서체의 형태미를 묘사한 시, 셋째, 서가의 성취를 묘사한 시, 넷째, 논서절구의 효시가 된 시로 구분할 수 있었다. 글씨를 폼평한 시는 이백의 「王右軍」이 대표가 되고, 서체의 형태미를 묘사한 시는 이백의 「草書歌行」과 두보의 「李潮八分小篆歌」가 모범이 되었다. 또한 절반에 해당하는 8 수의 시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당시의 서풍을 잘 반영해주는 현상이기도 하거니와 서체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서의 본질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경향이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 서가의 성취를 노래한 시는 이백의 「送賀賓客歸越」이 대표작이며, 논서절구의 효시가 된 시는 두보의 「戲爲六絕」이었다.

내용적인 분류인 논서시에 나타난 그들의 미학사상은 瘦硬美, 通神美, 尙古美이다. 수경미는 두보가 고래로부터 전해오던 ‘骨力’이나 ‘骨氣’의 개념을 자기만의 것으로 형상화 한 것이고, 통신미에서 글씨라는 것은 ‘神’해야 한다는 것은 이백과 두보가 가졌던 공통적인 미학사상이었다. 상고미는 현실의 정치적 불만족 자기이상과의 불일치를 바탕으로 한 상고이기도 하며, 이백은 왕희지를 추구하고 두보는 篆隸의 추존이었다.

이상을 통해볼 때, 이백의 논서시는 주로 형식적인 면에서 표준이 되었고 두보의 논서시는 내용적인 면에서 표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논서시는 학사자들이 그들의 시를 표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후 대대로 표본이 되었고, 송대 소식에 이르러 다시 한 번 논서시가 크게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다.

<參考 文獻>

- 杜甫 著·黃希 注, 『補注杜詩』.  
杜甫 著·仇兆鼈 注, 『杜詩詳註』.  
李白 著·王琦 注, 『李太白集注』.  
李白 著·楊齊賢 注, 『李太白集分類補注』.  
『全唐詩』, 上海古籍出版社, 1986.  
『杜詩諺解』, 도서출판다운샘, 1988.
- 郭魯鳳 選注, 『중국역대서론』, 東文選, 2000.  
金光郁, 「중국 논서시 연구」, 『1999년도 동계학술발표집』, 한국서예학회, 1999.  
凌麗萍, 「宋代論書詩研究」, 浙江大學, 2007.  
馬世曉, 「杜甫論書詩及其藝術思想」, 『中國書法』, 1993.  
潘運告 主編, 『漢魏六朝書畫論』, 湖南美術出版社, 1997.  
潘運告 主編, 『初唐書論』, 湖南美術出版社, 1997.  
方愛龍, 「草書歌詩與懷素草書」, 『杭州師範學院學報』, 杭州師範學院, 1992.  
方愛龍, 「馬雲奇及其懷素草書歌」, 『杭州師範學院學報』, 杭州師範學院, 1995.  
方愛龍, 「杜甫李潮八分小篆歌論兼與蘇軾比較」, 『杭州師範學院學報』, 杭州師範學院, 1998.  
배규범, 「논시절구의 경향과 전개양상」, 『어문연구』 11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1.  
裴奎河 編著, 『中國書法藝術史』, 梨花文花出版社, 2000.

- 沈培方·洪丕謨 選注,『歷代論書詩選注』,上海書畫出版社,1987.
- 楊克炎 選注,『書法咏論注』,遼寧美術出版社,1993.
- 禹在鎬,「唐代 書藝詩 試探」,『中國語文學 第43輯』,한국중어중문학회,2008.
- 劉熙載 著·高畑常信 譯,『書概』,雲林堂,1986.
- 尹天相,「論書詩賦初探」,『渭南師專學報』,渭南師專科學校,1991.
- 熊 飛,「馬雲奇懷素草書歌與懷素生平」,『杭州師範學院學報』,杭州師範學院,1995.
- 李起範,「중국 논서시 소고」,『漢文古典研究』 제15집, 한국한문고전학회,2007.
- 李起範,「清代 論書詩 小考」,『漢文古典研究』 제18집, 한국한문고전학회,2009.
- 李起範,「清代 論書詩에 나타난 學書傾向과 書藝美學」,誠信女子大學校 博士學位請求論文,2011.
- 李東喆,「李奎報의 論詩詩 小考」,『韓國言語文學』 제27집, 한국언어문학회,1989.
- 李丙疇,「杜甫의 論書詩와 論畫詩」,『書通』 19號,東方研書會,1990.
- 李丙疇,「杜甫」,민음사,1993.
- 李鍾漢,「歷代論詩絕句研究」,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2.
- 蔣邦澤,『歷代論書詩選注』,西南師範大學出版社,1998.
- 張芝熏,「朝鮮朝後期 書藝美學思想 研究」,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7.
- 張學鵬,「杜甫論書詩研究」,河北大學 碩士學位論文,2010.
- 周本淳,「杜甫與蘇軾論書詩之比較」,『淮陰師專學報』哲學社會科學版,1988.
- 中田勇次郎 編集,「書譜」,『中國書論大系』第二卷,二玄社,1978.
- 蔡顯良,「唐代論書詩研究」,南京藝術學院 碩士學位論文,2004.
- 蔡顯良,「宋四家論書詩概說」,『中國書法』,2004.
- 蔡顯良,「黃庭堅論書詩研究」,『書畫世界』,2006.
- 蔡顯良,「宋代論書詩研究」,南京藝術大學 博士學位論文,2007
- 何元元,「李白草書歌行眞僞」,『淮陽師範學院學報』,淮陽師範學院,1988.

### Abstract

*A Study on Nonseosi(論書詩:Discussible Poetry) by Lee Baek and Du Bo*

*/Lee Gi Bum\**

Early in Chinese culture, the handwriting has been coexisted the functional aspect as saying of delivering a record by simply transcribing a character, and the artistic aspect on how beautifully a character will be expressed. As the narrative culture is created by being invented writing brush in ancient times, these things of either historical documentaries or literary works have been recorded by description in a writing brush. A professional calligrapher appeared while calligraphy in the Han Dynasty(漢代) was recognized as art. Thus, an effort for expressing a record in this character more artistically was begun.

In the meantime, calligraphy is art that has character as medium. Thus, even the contents of sentence, which becomes the subject of description, have great influence upon calligraphy of Seosaja(書寫者:calligrapher for the painting). A case of poem even among those literary works is nearly consistent with calligraphy in writing its sentiment through sympathy between any object and writer, thereby having many points of being conformed even out of other genres.

In the Tang Dynasty, a poem was the most important literary expression. Thus, what composes a poem and writes such inspiration as calligraphic work was the general culture in the Tang Dynasty, which had been come down from many generations. There is great suggestion in a sense that the so-called calligraphy in the contemporary writers at that time is a method of directly transcribing sentence that they composed. At that time of having composed

---

\* Adjunct Professor of kyonggi University / leehyunso@hanmail.net

poem, almost all the parts need to be recorded with relying upon handwriting. At that time of needing to appreciate poem with first seeing the handwriting, a character first jumps to the eyes rather than the contents of poem. Thus, sentiment, which is delivered from handwriting, is very important. And when such sentiment is well harmonized with the contents of poem, the inspiration is doubled along with the contents of poem as for a person who appreciates a poem. Due to these factors, the famous poets at that time are joining the line of creating Nonseosi(論書詩:Discussible Poetry). Lee Baek(李白) and Du Bo(杜甫) who had been great poets were not exceptional, too.

Trying to divide 17 Su(首:piece)s of poetry, which had been left by Lee Baek and Du Bo, into form and content, one model was formally made on Nonseosi in future generations. Their Nonseosi could be divided comprehensively into first, a poem of having criticized handwriting, second, a poem of having depicted formative beauty in handwriting, third, a poem of having depicted achievement of Seoga(書家), and fourth, a poem of having become the beginning of Nonseo-Jeolgu(論書絕句). A poem of having criticized handwriting was represented by Lee Baek's 「Wangugun(王右軍)」. A poem of having depicted the formal beauty in handwriting was made an example by Lee Baek's 「Choseogahaeng(草書歌行)」 and Du Bo's 「Ijopalbunsojeonga(李潮八分小篆歌)」. Also, what a poem with 8 Su(首:piece)s of corresponding to a half conforms to this is the phenomenon of well reflecting the contemporary calligraphic style, and is also what was shown their tendency of trying to pursue the essence of Seo(書:writing) through beauty of handwriting. A poem of having sung the achievement of Seoga(書家) was represented by a work of Lee Baek's 「Songhabingaekgiwol(送賀賓客歸越)」. A poem of having become the beginning of Nonseo-Jeolgu(論書絕句) was Du Bo's 「Huiwiyeukjeol(戲爲六絕)」.

Their aesthetic thoughts, which were shown in Nonseosi(論書詩) as the

contextual classification, include Sugyeongmi(瘦硬美), Tongshinmi(通神美), and Sanggomi(尙古美). Sugyeongmi(瘦硬美) is what Du Bo embodied a concept of 'Golryeok(骨力)' or 'Golgi(骨氣),' which had been come down from the ancient times as his own. What handwriting in Tongshinmi needs to be made 'Shin(神:divine)' was the common aesthetic thought that had been possessed by Lee Baek and Du Bo. Sanggomi(尙古美) is also Sango that is based on the inconsistency with ego ideal in political dissatisfaction of reality. Lee Baek pursued Wang Hui-ji. Du Bo respected Jeonye(篆隸). In light of the above, Lee Baek's Nonseosi(論書詩) became the standard mainly in the formal aspect. Du Bo's Nonseosi(論書詩) can be known to have become the standard in the contextual aspect. Haksija(學詩者)s had their poetry as an example. Thus, their Nonseosi(論書詩) had become an example for generations since then. It became an opportunity that Nonseosi(論書詩) revives greatly once again with reaching the Sosik(蘇軾) in the Song Dynasty.

**【Key words】** Lee Baek(李白), Du Bo(杜甫), Nonseosi(論書詩:Discussible Poetry), Calligraphy, Sugyeongmi(瘦硬美), Tongshinmi(通神美), Sanggomi(尙古美)

투고일 : 10월 30일, 심사일 : 11월 26일, 게재확정일 : 12월 7일